

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

김 미 경* (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)

송 정 아 (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)

본 연구는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 후의 결혼생활에서의 부적응, 부부 갈등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부부 관계향상 및 친밀감 증진으로 건강한 부부,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본 연구는 8회기의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 전에 있는 예비부부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. 연구진행 과정은 프로그램 실행 전·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6쌍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, 프로그램이 종료된 3개월 후에 실험집단에게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.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예비부부들의 관계향상에 대한 연구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, paired-t test 등의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.

본 연구에서 입증된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은 예비부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. 커플 관계에서 의사소통, 갈등해결, 성 태도, 재정관리, 개방성, 상호신뢰, 친밀감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둘째, 성별에 따른 변화를 보면 남성은 의사소통, 갈등해결, 성 태도, 상호신뢰, 친밀감이 향상되었고 여성은 개방성이 향상되었다.

셋째, 예비부부의 의사소통, 성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해결, 재정관리, 개방성, 상호신뢰, 친밀감은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. 본 연구는 소수의 예비부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얻은 결과임으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.